

1998 치과계 전망

# 구강보건과의 활기찬 사업 기획 및 추진



치무이사 한영철

작년 말에 부활한 '구강보건과'가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앞장설 수 있고 또 활기차게 자체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측면 지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기구 축소가 운위될 때마다 신설부서가 존폐 문제로 위태로웠던 것이 전례였던 만큼 예의 주시하여야...

IMF구제금융시대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이 병·의원 이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리라 보며 지나친 환율인상에 따른 의약품 및 소모 재료값의 앙등으로 의약계 전반을 침울하게 할 것입니다.

단군 이래 첫 평화적 정권교체를 맞아 새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 공약에 많은 기대를 걸며 주목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 수가 계약제, 독립된 공적 심사 전문 기관, 의료전달 체계의 협력적 구조 조축 등 평소 의료계의 주장을 많이 담고 있어 기대되는 바 큼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부활한 '구강보건과'가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앞장설 수 있고 또 활기차게 자체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측면 지원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기구 축소가 운위될 때마다 신설부서가 존폐 문제로 위태로웠던 것이 전례였던 만큼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강보건법' 제정은 필수적인데, 작년과 달리 여·야당이 뒤바뀐 정치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초부터 제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치과부문 공공의료의 확대와 3차 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부합하는 국립치과대학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가 치과계의 사회적 위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상징하는 바가 크므로 그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에 적잖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건예방사업의 확대 속에 성취한 구강건강진단 사업이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과계의 역량을 모아 다각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양질의 진료를 위해 절실한 진료보조인력의 문제가 비록 1,500여 명이라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인력이 배출된다 해도, 또 IMF 한파로 대기업 등이 감원 회오리와 실업난을 겪는다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예상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20대 초반의 세대들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계층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자세나 마음의 준비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과의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간정부의 출현으로 행정은 다양한 시민단체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 단체로서 치과의사협회도 작년에 이들 시민단체와 생산적 경험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 및 유관단체와 평상시 다양한 연대 및 공동사업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과계 내부문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 문제를 국가정책적 차원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작으나마 알찬 연구모임이 태동하기를 기대해 봅니다.